

2016.6.

지식 지정학: 지식의 힘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org

이드리스 애버케인 박사
[Idriss J. ABERKAN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org

www.fondapol.org

지식 지정학: 지식의 힘

이드리스 애버케인 박사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is a French think tank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free economy.

Chair: Nicolas Bazire
Vice-chair: Grégoire Chertok
Executive Director: Dominique Reynié
Chair of Scientific and Evaluation Board: Laurence Parisot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is publishing this paper
as part of its work on *values*.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A French think tank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free economy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provides an independent forum for expertise, opinion and exchange aimed at producing and disseminating ideas and proposals. It contributes to pluralism of thought and the renewal of public discussion from a free market, forward-thinking and European perspective. Four main priorities guide the Foundation's work: economic growth, the environment, values and digital technology.

The website www.fondapol.org provides public access to all the Foundation's work. Anyone can access and use all the data gathered for the various surveys via the new platform «Data.fondapol» and data relating to international surveys is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In addition, our blog “Trop Libre” (Too Free) casts a critical eye over the news and the world of ideas. “Trop Libre” also provides extensive monitoring of the effects of the digital revolution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actices in its “Renaissance numérique” (Digital Renaissance) section.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is a state-recognized organization. It is independent and receives no financial contribution from any political party. Its funding come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ources. Backing from business and individuals is essential for it to develop its work.

초록

지정학은 영토와 권력 간의 상호작용이다. 지식 지정학은 권력과 지식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반사적이면서도 파괴적이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이 권력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과 통치 방법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식 지정학의 목적은 권력이 지식을 지배하는 상황, 이를테면 과학은 인류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 결국 과학을 국가에 넘겨 주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권(智識圈)의 존재를 인정한다. 여기서 지식권이란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안선을 공유하는 지식의 바다이고, 국가들은 국가의 자유로운 행동의 영역인 행동권 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의 바다를 이용한다.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도 혁신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인지능력이 있지만 오늘날 중국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지의 미숙함은 국가가 혁신하기 이전에 제한되기를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극히 한정된 이유에 따라 행동하며 무엇이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지 알지 못한다. 전통적 지정학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식 지정학은 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자신에 대한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국가 금욕주의의 근본이다. 결국 전쟁은 오직 지식과 무지의 공존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적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고 무지는 갈등 그 자체에 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절대 지식과 마주하면 전쟁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

지식 지정학: 지식의 힘

이드리스 애버케인 박사(Dr. Idriss J. Aberkane)

스텐포드 대학 코즈메츠키 글로벌 공동 연구소(The Kozmetsky Global Collaboratory) 공동 학자. 에콜 센트랄 파리(Ecole Centrale Paris) 지정학 및 지식 경제 강사, 파리-사클레이 대학 에콜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생체 모방 공학 및 신경 인간 공학 연구원, 캠브리지 대학 실험 심리학부 전 인턴, 유네스코-트윈 CS-DC(Complex Systems Digital Campus) 대사, 마자 대학(Mazar University) "Next MBA" 프로그램 지식 경제학 교수

idriss.aberkane@polytechnique.edu

한국어 번역 정윤신
Translation : Yuns-Hin Jung

서론

지정학은 영토와 권력 간의 상호작용이다. 공간 정치학은 권력, 공간, 시간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공간 내에서 거리는 시간의 기능을 갖는다. 지식 지정학은 권력과 지식, 권력과 지혜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의 정치학이자 지식의 지정학이다. 이것은 깊은 함축적 의미들을 내포한다. 이것은 과거 군주들의 행위, 그들의 실수와 성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더욱이 세계화 된 세상에서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통치권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식 정치학(Noopolitik)은 모든 층위의 인간 조직에서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 바로 자신에 대한 통치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 정치학은 앞으로 탐구할 여러 측면에서 현실 정치(Realpolitik)를 초월한다. 권력을 외부의 통제로, 지식을 외부의 인식으로, 그리고 지혜를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제로 규정할 것이다. 원래 “지식 정치학(Noopolitik)”이란 용어는 권력이 지식을 통제해야 하는 국가의 정치학을 설명하는 다소 좁은 의미의 어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원칙을 확장하고 뒤집고 초월하는 데 있다. 즉 지식 지정학이 권력과 지식 간의 상호작용이라면 우리는 권력이 지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지식이 권력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을 체계화하기를 바란다.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과 더불어 미국 군산업 단지의 연구개발 기관 중 하나인 RAND 사의 존 아퀴라(John Arquilla)와 데이빗 론펠트(David Ronfeldt)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화 된 지식 정치학(noopolitik)은 국가적인 지식의 정치학, 즉 예방과 필연적 지배를 위해 지식과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술로 정의되었다. 오늘날 미국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도 특별히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의미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지식 정치학(Noopolitik)은 또한 이미 “아테나의 캠프(in Athena's camp)”에 존재 하는 방법, 다시 말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쪽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 처음 월드 와이드 웹이 출현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시기의 최초의 지식 지정학과 우리가 이 논문에서 체계화할 지식 지정학을 관통하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연속성과 변화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전술과 앙투안 드 조미니(Antoine de Jomini)의 “원대한 전술 (grand tactique)” 사이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론펠트와 아퀴라는 권력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광범위하게 탐구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작업을

“아테나의 캠프”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공언된 욕망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지혜 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권리¹를 위배하며 세상의 모든 형태의 소통을 가로채는 것을 목표로 세운 국가안보국이 정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지만 지혜는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안다. “원대한 지식 정치학”(Grande noopolitique)은 정확히 이러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식 지정학(noopolitics)이라 부를 것이다. 따라서 noopolitik 을 지식 정치학으로, noopolitics 을 지식 지정학으로 정의한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권(noosphere, 모든 지식의 영역), 지권(geosphere, 여기서는 편의상 인종권(demosphere, 인종의 영역)을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 지정학과 현실주의자들의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권(kinesphere, 가능한 모든 행동의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인간의 행동권은 각자의 가능한 행동의 총합이다. 우리는 단지 이 개념을 국가로 확장시켰고, 지식 지정학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특히 지혜와 금융주의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국가로 확장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략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지키는 기술이다” 라는 크세노폰(Xenophon)의 말을 참고로 행동권을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는 우리에게 국가는 끊임없이 행동을 위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국가의 지혜 수준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이러한 능력에 대해 우리가 게임의 변수(game changers)라고 부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국가들은 행동의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써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웃 나라의 행동의 자유를 축소시키기를 바란다.

저개발된 과학 기술을 가진 미성숙한 나라가 진보된 과학 기술을 가진 미성숙한 나라보다 덜 위험하다는, 국가와 테크놀로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정식이 있다.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엄청난 위험은 국가는 미성숙한데 과학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지식 지정학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지식 지정학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하고 현대적이면서 고전적이다. 지식의 시대이자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대인 21 세기는 분명 지식 지정학적일 것이기 때문에 지식 지정학은 현대적이지만, 한편 손우(Sun Tzu),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이븐 할둔(Ibn Khaldun), 마키아벨리(Machiavelli), 클라우제비츠(Clauswitz), 텔리랜드(Talleyrand), 조미니(Jomini), 맥킨더(Mackinder), 폴 케네디(Paul Kennedy), 레이몬드 아론(Raymond Aron),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를 연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심지어 초월하기 때문에 고전적이기도 하다. 지식 지정학은 신고전주의적 지정학, 그중에서도 여러 면에서 우리 시대의 메테르니히(Metternich)였던 브레진스키의 지정학과 그 전제를 공유한다. 지식 지정학의 전망에는 양보가 아닌 초월을 통한 갈등 해결과 다른 논문에서 전개될 “평화 산업 단지(peace-industrial complex)”에 관한 정치적으로 훌륭한 개념이 포함된다.

지식 지정학은 간단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텔리랜드가 “누군가 옳다면 40 페이지나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전쟁의 기술 또는 군주”(The Art of War or The Prince)와 같은 간결함을 추구하여 독자들이 각 섹션을 독립적으로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팜플렛의 형식을 취한다.

¹ 세계 인권 선언 제 12 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와 신원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제공한 증거는 국가 기관의 행동들이 일상적으로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 권력과 지식에 관하여

1.1

사람과 국가 모두에게 두 가지 형태의 권력, 즉 자신에 대한 권력과 타인에 대한 권력이 존재한다. 자신에 대한 권력은 타인에 대한 권력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자신에 대한 권력보다 타인에 대한 권력을 선호하게 한다.

1.2

자아는 소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다. 국가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자아는 전쟁이 처음 존재한 이래 모든 지정학적 악의 근원에 자리해 왔다.

1.3

인간처럼 국가도 타인에 대한 권력에 매료되고 자신에 대한 권력을 무시한다. 이것은 언제나 자기 파괴의 근원이 된다.

1.4

인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가진 것을 잃고 난 후애야 능력이나 자산의 진정한 사용과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하기보다 새로운 영토와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소유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했었다면! 만약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에 앞서 차치하고 있던 영토에 만족했었다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아가 모든 것을 망쳤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내부적 위대함은 위기의 사건에서 명백해진다. 부지불식간에 곤경에 처했을 때 국가는 그들이 가졌던 것과 박탈당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물질적으로 잃은 것을 지혜와 깨달음의 형태로 비물질적으로 얻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 자신 말고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적 자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 철학적 자산은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그러한 자산을 단념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물질적 부와 비물질적 부 간에서 또는 국가의 지혜와 소유물 간에 가끔 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

1.7

지혜 없이 권력만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미친 사람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고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병든 조직의 기능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동 수단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병든 국가는 근심의 원인이다. 국가가 연약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을 갖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낫다. 한창 때 중국 문명은 육체적으론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그 힘으로 몽골을 지배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힘은 없어도 적어도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런 사람은 인류를 위한 보물이며 항상 후원자들이 생기게 된다. 알렉산더(Alexander)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디오게네스(Diogenes)처럼, 현명한 사람은 명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의 정도가 암시하는 것보다 살아 있는 동안 독립을 훨씬 더 즐긴다. 그러나

알렉산더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제국처럼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국가는 지혜와 권력을 동시에 소유한다.

1.8

사실상 자신에 대한 권력과 타인에 대한 권력 사이에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미성숙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권력에 매료되고 열광한다. 하지만 강력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판단력이 전혀 없는 것과 수단은 전혀 없지만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 먼저 해를 끼치지 마라(primum non nocere)는 원칙은 분명 지혜 없는 폭군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위협하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현명한 사람이 지혜 없는 폭군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구현된 국가, 즉 실제 국가에게 권력과 지혜 사이에서, 또한 수단(파괴적이기도 하고 건설적이기도 한)과 이러한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 즉 수단을 이용할 지혜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피는 모든 행위는 세상에 대한 지식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수피는 지식 지정학의 선구자(모든 현자들이 그러하듯)로서 지식 지정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1.9

군주는 타인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력, 즉 전 범위에 걸친 지배(full-spectrum dominance)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그러한 지배와 결합된 미성숙한 이성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 인식이 전혀 없다. 이러한 조직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선을 위해 공헌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며 인류의 자기 파괴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들은 현실 정치 덕분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1.10

최근에 국가가 행사하는 두 가지 종류의 권력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하드 파워(hard power)라 명명되었고 이 둘의 조합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로 알려졌다. 국가를 사람에 비유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드 파워와 스마트 파워 모두의 한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 파워는 마음과 정신을 매료시키고 얻는 능력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하드 파워는 마음과 정신과는 상관없이 육체를 범하고 빼앗는 능력이다. 정부나 국민들이 강간범과 사랑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일종의 신경증이나 정신적 혼란을 가정하는 것이다. 조비그뉴 브레진스키가 통찰력을 가지고 언급했듯이 이것은 정확히 지난 60 년 넘게 수많은 아랍 국가들에 기대되어 온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혹적이기도 하고 증상적이기도 하다. 사실 최근의 역사는 단지 국가를 범하는 것이 결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 이 두 가지 요소이다. 오늘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본토를 지배하지만 결코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19 세기 초에 스페인에서의 나폴레옹의 역사를 읽어 보라. 물론 침략을 당한 후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드물다. 정치적 성공이라는 점에서 소프트 파워는 단연 최고의 권위 형태이고 반면 하드 파워는 단념의 수단, 그러므로 방어에 사용되는 수단으로서만 지속적인 효력이 있다. 이처럼 하드 파워를 단념시키는 데, 소프트 파워를 정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꿔 사용함으로써, 즉 하드 파워를 공격 수단으로, 소프트 파워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막대한 실수를 저질러 왔다.

1.11

벽돌과 모르타르가 칼(gladius)과 필라(pila)보다 로마 제국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3 년 이라크 침공 당시 전쟁 수단으로 “충격과 경외 (shock and awe)”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위압하는데 파괴가 사용되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저항만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무는 심리적 도피나 싸움의 매커니즘이 궁지에 몰린 동물로부터 필사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게도 두려움은 싸우고자 하는 결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군대를 결코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고 경고했다. 파괴에 의한 충격과 공포는 최소한 절망으로 이어져 보복의 방법으로써 자살 공격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한편 건설에 의한 충격과 공포는 그 한계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초월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 모범이 되는 태도로 행동함으로써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 파괴의 능력은 단지 정치적으로 한정된 결과만을 갖지만 긍정적 인 건설의 능력은 그 한계를 모른다. 완전한 파괴는 있어도 완전한 건설은 없다.

1.12

모든 제국은 통합의 방법과 정복의 방법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제국의 과도한 확장이 제국의 자기 파멸을 이끄는 전형적인 계기가 되는 명백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과도하게 확장하는 제국은 인적·물적·재정적·과학 기술 자원의 재산을 하드 파워에 소비한다. 결국 이러한 자원의 소비는 다른 나라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최종 소비 비용과 비교했을 때 결국 그 가치가 터무니 없어 보이는 영토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프가니스탄은 새로운 “역사의 지리적 중심”(Mackinder)에 속해 있지만 이 영토의 점령은 기반 시설, 학문, 정치, 경제적 통합에 썼다면 훨씬 좋았을 NATO 에서 나온 천문학적 수치의 액수를 집어 삼켰다. 이는 단지 증오, 경멸, 절망으로 이끌 뿐이므로 그 결과는 소프트 파워의 재앙이다. 한편 하드 파워에 관해서도 이것은 전개된 군사력의 예상치 못한 위태로움과 무엇보다 무용성을 드러낸다. 결국 미국 군 역사에서 정의와 고결한 대의를 위해 싸우며 걸으며 보기에 그들의 수단을 뛰어 넘은 듯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준 두 명의 위대한 조지(Georges)(워싱턴(Washington)과 패튼(Patton))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군사력은 통탄할 정도로 형편 없는 목적 대 수단의 비율을 보여준다.

1.13

미성숙한 사람과 국가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역사책(전적으로 주관적인 역사, 역사의 왜곡 그리고 집단적 양심에 새겨진 오토마티즘)은 통합한 통치자들보다 정복자들에게 훨씬 큰 흥미를 느낀다. 이드리스 샤(Iddris Shah)는 우리에게 “역사는 대체로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역사는 몇몇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들이다”, 그리고 “노력이 몇몇 위대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고 훨씬 더한 노력이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알려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만약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려는 시도 대신에 프랑스의 영토를 통합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시대에 나폴레옹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몇 가지 훌륭한 생각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초국가주의적 전쟁들이라는 결과를 제외하면 오늘날 나폴레옹 제국에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오쩌둥(Mao Zedong)은 7 년 전쟁 중 시작되어 나폴레옹에 의해 또 다른 수준에서 다루어진 과정의 지정학적 계승자이다. 미국은 1981 년 이래 걸프에서 미국의 존재를 지탱하는데 들어간 수 조 달러보다 적은 비용이 들었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키에브까지의 “하이퍼루프” 철로와 같은 경외심을 일으키는 기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대서양 평화 조약을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미 제국은 오늘날처럼 쇠퇴를 목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제국이 통합에 투자하고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제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많은 것을 얻어 결국 그 돈이 군에 사용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복할 수 있게 된다. 만약 21 세기에 군대가 더 이상 정복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복이 자신을 정복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정복은 군 최고의 임무로 남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업이다. 그는 자신을 정복한 자를 정복한다. (Vinci qui se vinct)

1.14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기 위해(do) 그리고 되기 위해(be) 갖는 것(have)을 목표로 한다. 산업 혁명에 의해 정의된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인간을 도구로, 경제 바퀴의 톱니로 여긴다. 이것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이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에서 “나는 선생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빵 만드는 사람이다”와 같이 자신을 기능으로 정의한다. 자기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나다”, “나는 사람이다”로 나타내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일을) 하기(do) 위해 따라서 (자신을 선생, 빵굽는 사람 등으로 나타내기) 되기(be) 위해 (학위, 자격증)을 가져야(have) 한다. 현명한 사람은 하기 위해 그리고 가지기 위해 자기 자신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이 없이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시작하는 사람이다.² 현명한 국가도 같은 맥락을 따른다. 즉 자신에 의해 정의되었을 때 국가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다. 오직 이러한 조건에서만 국가나 개인이 인류를 위한 보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면, 순전히 국가의 상호 승인에만 근거한 권리를 가진 현존하는 국제 시스템이 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2. 현실 정치에 관하여

2.1

지정학과 외교는 함께 인류를 위해 물질적 약품³을 구성한다. 지정학자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건강이 의사들이 보살피는 건강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자들은 적어도 의사들만큼 중요하다. 지정학과 의학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는데, 이것은 가령 의사-현실 정치자가 절개를 할 때 죽는 것은 세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점은 현실 정치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2.2

인류는 인간들로 구성된 인간이다. 대다수의 정치가들은 몇 사람의 통합이 나머지 모두를 통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에서 모든 세포들의 활동과 독자성(identity)을 통합하는 하나의 소규모 세포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신체의 중앙 신경 조직 또한 몇 개의 뉴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² 이 표현은 살아있는 진정한 화신이었던 허브 트루이에(Hervé Trouillet)뿐만 아니라 셰이크 압둘라예 디에예(Sheik Abdoulaye Dieye)와 “평화의 최초 여정”에서 이 표현을 전개했던 그의 제자 셰이크 알리 엔다우(Sheik Aly N'Daw)가 만들고 사용했다.

³ 지금으로서는 정신적 대안이 없다.

2.3

대중이 종종 개인보다 훨씬 덜 이성적이고 현명하지 않듯 인간들로 구성된 인류는 추종할 가치가 있지만 또한 조롱할 가치도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가상의 대중들이 위키피디아에 공헌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들이 그들의 지식을 공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대중의 집단적 우수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우수함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어리석어질 수 있는 반면 보통의 개인들이 뛰어난 집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아는 개인과 국가 모두가 단체로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조건에서는 단순히 기능적인 그룹이 매우 뛰어난 개인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육 전략에 고려되어야 한다.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자아이다.

2.5

한 국가의 자아는 지도자들의 자아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자아와 집단적 자아 사이에는 어느 것이 다른 것을 지행하는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교환 작용이 이루어진다. 불건전한 국가주의가 불건전한 국가주의자들을 만드는가 하면 불건전한 국가주의자들이 불건전한 국가주의를 만들기도 한다.

2.6

생리학이 있어 인류는 매일 자연적으로 세포를 잃고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지혜가 더불어 증가하지 않는 한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줄이는 것도 결코 필요하지 않다. 인구는 반드시 저절로 안정되어야 하며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빨리 혁신하고 습득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안정화는 무력이나 책략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호적이고 의식적이며 모범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7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같다. 바로 이러한 유사성이 현실 정치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실 정치의 간단하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격언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중세 시대에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 말하자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소크라테스, 예수, 마틴 루터 킹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이유로, 국가가 국가의 최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하며 언제나 그러한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이다. 인간에게 행해지는 의술과 인류에게 행해지는 의술 사이의 근본적인 도덕적 차이점은 인간은 세포에는 없는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8

현실 정치의 다음은 같이 실행된다. 1) 공공의 선을 위한 최고의 목표를 세운다. 2) 물리학의 법칙이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오직 물리학의 법칙만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필요한 수단을 반드시 획득한다. 나폴레옹의 스페인 대학살부터, 특히 냉전시대(Operaton Condor)에 먼로 정책(Monroe Doctrine)으로 정당화되고 미국에 의해 지지된 학살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모든 학대는 위 두 가지 실행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의 핵심에는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이성의 원칙이

있다. 즉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권력을 얻으면 그들은 반드시 고통을 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이 내일 삶을 더 즐길 수 있도록 오늘 약간의 고통을 주기로 선택한다. 많은 제국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배 받고 있는 권력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여기고 주장하면서 진보해왔다. 때로는 이러한 원칙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원칙을 초월해야 한다.

2.9

“Primum non nocere (먼저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나 현실 정치의 방법은 메스에 비유될 수 있다. 환자와 목격자들이 수술 전에 마취가 되어야 할 정도로 이러한 방법들은 피를 흘리게 하고 상처를 남긴다. 이것이 “전쟁의 최초 사상자는 진실이다.”라는 격언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마취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와 선전으로 알려져 있다. 상처는 테러, 증오, 폭력, 복수에 대한 욕망을 포함한다. 현실 정치는 바로 이 방법들로 오늘날의 평화를 세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내일의 전쟁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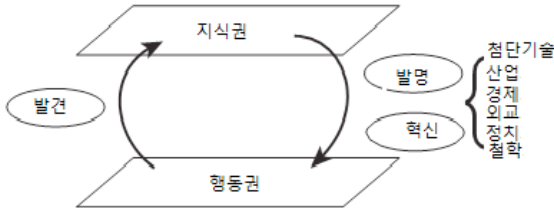
현실 정치의 간섭에 대한 타당성은 행동하지 않음은 희생자를 낳고 행동 역시 희생자를 낳는다는 말로 정당화된다. 개인의 권리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두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는 순간 바로 인간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반대로 안전을 증대시키는) 중세의 통치 형태를 초월하여 대량 고문의 합법적인(de jure) 폐지가 개념적 도약을 이루었던 것처럼 현실 정치를 능가하고 그 방법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초월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2.11

지식과 지혜는 깊고 미묘한 방식으로 현실 정치와 상호 작용한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는 정치적 행위의 가용한 수단들을 수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비록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가 쿠데타로 변하면서, 2014 년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처럼(2013 년 불가리아의 경우는 예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사회적 테크놀로지, 즉 사회 공학의 개념으로 무장한 우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도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응용 지식은 그것이 수술적 처치이든 현실 정치적 처치이든, 그러한 처치가 수행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응용 지식은 또한 처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raison d'être)를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의 관점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는 처치가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EU)이 그러한 초월의 한 예시인데 비록 유럽 연합이 NATO와 상하이 협동 조합(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SCO))과 같은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유럽 국가들이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갈등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2.12

지식권과 행동권 사이의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C3 - Dr. Idriss J. Aberkane, 2015

지식의 바다인 지식권은 모든 사람이 쪽 펼쳐진 해안선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러한 접근의 가장 큰 제한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적용해 보면 지식은 국가나 조직의 행동 능력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행동을 하는 이유도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오직 강요되었을 때에만 행동 능력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전면전이 과학 기술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 된 이유이다. 모든 파격적 혁신은 처음에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면전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것들(예를 들어 나찌의 Wunderwaffen 캠페인처럼)을 고려할 지적 수단을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OECD와 SCO 사이의 경제군사적 대립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3. 거대한 체스판, 거대한 바둑판, 그리고 거대한 지식 지정학의 게임에 관하여

3.1

브레진스키는 신현실주의자의 지정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묘사했다. 게임을 장악하기 위해 체스판의 중앙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제 관계와 체스 게임 사이에 그러지는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은 프랑스와 영국이 세계적 규모의 갈등(나폴레옹 전쟁과 7년 전쟁 이후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뻔 했던 파쇼다(Fachoda)에서 절정에 달했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열린 지정학적 전투지의 무대였다. 외부의 예상이 적중했듯이 프랑스가 물러났던 주된 이유는 1870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오래된 여파 때문이었다. 오늘날 하나의 권력이 그 지역들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지정학적 체스판들의 중심은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독립을 추구하는 여러 개의 국가 그리고/또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역, 히말라야, 캐스피안 해의 주변 지역의 경우가 그렇다. 전 역사에 걸쳐 제국들이 서로 맞서 왔던 모든 지역은 분열되었다. 남미가 아프리카보다 덜 분열되었다면 그것은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하여 남미의 오직 두 나라 사이에서만 대륙을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북미가 19세기에 그렇게 결정적이고 예상치 못한(비록 충격적인 대량학살의 방식이지만) 방식으로 분열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국 전체의 감정, 즉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남미와 나머지 세계를 거부한 어떤 것으로 이어졌다. 종종 거대한 체스판에서 독립주의자들과 편향자들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개로 이용된다. 보통 도덕적 타당성이 한 쪽으로 떠밀린 곳들인 코소보, 트란스니스트리아, 크림반도, 다게스타, 체첸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신젠이 그 예이다.

3.2

전략은 행동에 옮기는 수단을 지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둑과 더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상대의 가능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연방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쟁은 왕의 최후의 사안이다. 즉 전쟁은 오직 권력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행동에 옮길 능력을 펼칠 수 없을 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 1 차 세계 대전은 주로 바둑과 체스 게임을 동시에 닦은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체스 게임의 관점으로 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분열시키고, 아랍 반도에서 T. E. 로렌스(T. E. Lawrence)의 역할로 구현된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운동에 정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스만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약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바둑의 관점으로 보면 독일 제국의 가능한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독일은 원유 공급의 원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바그다드까지 철로를 건설하려 했다. 이것은 자원이 빈약한 선진국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후진국의 완벽한 동맹이었다. 베를린 페르가몬 뮤지엄(Pergamon Museum)에 있는 이쉬타 게이트(Ishtar Gate)는 이러한 동맹의 시대의 증거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이 철도(그 시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기 위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 후 제 1 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모든 면에서 타협할 준비가 되었지만 원유 공급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일의 철도 노선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던 세르비아에서 독일의 통제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넓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프랑스의 존재가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 철도가 놓일 가능성을 방해하기 겨우 16 년 전에 프랑스와 영국은 최초의 세계적인 충돌을 일으킬 뿐 했다. 그런 다음 두 나라는 독일에 대항한 싸움에서 권력의 균형이라는 영국의 정책에 부합하여 동맹을 맺게 된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비록 독일이 베를린-바그다드 철로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3 국 동맹이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책은 “훈족”을 악당으로 소개한다.

3.3

중국도 과거의 독일과 유사하다. 브레진스키는 중앙 아시아가 세계적인 충돌의 새로운 무대가 될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글로벌 발칸(global Balkans)”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실 중국은 마치 예전의 독일처럼 원유로의 접근법을 찾고 있는 산업화된 새로운 대륙 권력이고 NATO 는 마치 연합군처럼 중국을 에워싸기 위해 그들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왔다. 핵무기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1914 년 3 국 협상과 3 국 동맹 사이에 발생했던 것처럼 SCO 와 OECD 사이에서 분명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기술인 핵무기가 어떻게 지정학적 교과서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잠재적 제 3 차 세계 대전을 1991 년 이래로는 우리가 은밀하게 관련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거부권 이래로는 매년 공공연하게 관련되어 온 “새로운 냉전”으로 축소시켰는지 알고 있다.

3.4

불규칙하게 뻗어 나가는 이러한 현대의 바둑판에서 중국은 대체로 에워싸여 있으며 중국에 원유를 제공했거나 제공할 계획을 가졌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리비아,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수단처럼 분쟁을 겪거나 분열되어 왔다. 따라서 앙골라는 곧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의 베를린-바그다드 철로는 러시아의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와 같은 현 시대의 등가물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불가리아는 2013 년 봄에 발생했던 변화를 포함하여 여러 번 정부의 변화를 겪었다.

3.5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주의적 지정학적 규칙들은 모두 국가는 인지력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압박 하에서 배우고 더 똑똑해진다. 이것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반(反)취약성(antifragility)”이라 부른 것,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빌리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이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압박이 실은 중국을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베를린-바그다드 철로를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로 무력 분쟁의 길로 들어선 독일 쪽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전략적 행동(a posteriori)은 그 나라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핵무기가 타당하게 중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중앙 아시아에서 무력 분쟁의 방법으로 행동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국의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탁월한 행동 능력을 지닌 제국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의 몰락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제한될수록 비로소 더 현명해지고 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제국들은 압박과 역경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것이 매일 눈 뜨면 그 나라의 봉쇄에 감사해야 하는 나라, 현대 중국의 경우이다. 행동권에서 잃어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은 지식권에서 100 배 이상으로 보상받는다. 그러므로 지식 지정학의 중요한 원칙은 행동권에서 지식권으로의 탈출 경로, 더 이상 수평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능한 수직적 움직임의 존재에 중점을 둔다. 언제나 지식권이 먼저 탐구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국가는 거의 항상 지식권을 탐구하기 전에 그들이 행동권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3.6

신현실주의의 주요 한계 중 하나는 신현실주의는 지식권의 존재, 즉 첨단 기술, 아이디어, 개념, 그리고 심지어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갇혀있을 때에도 접근할 수 있는 지혜의 바다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식권에서 국가는 항상 스스로의 행동 능력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바다로의 접근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 봉쇄될 수 있지만 지식권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국가 자신 뿐이다.

인간처럼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가장 큰 적이다. 더욱이 그들이 자신의 적이라 믿는 나라들이 사실은 최고의 스승이다. 적대자가 최고의 스승이므로 중국이 OECD 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에 감사해야 한다. 결국 적대자는 제국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초월적 관심사에 반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알면 적대자는 투쟁자로, 그런 다음 동지로 바뀐다. 행동권에서 제한된 국가는 지식권을 탐구하게 되고 지식권의 경계는 항상 국가에 열려 있지만 국가는 너무 자주 그 경계로부터 자신을 폐쇄해 버린다. 더욱이 한 나라의 행동권을 제한함으로써 그 나라에 피해를 가한다고 믿는 국가는(예를 들어 SCO 에 대한 OECD 의 태도처럼) 이것이 그 나라를 지식권으로 자연스럽게 몰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번째 국가는 지식권에서 그 나라의 존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첫 번째 국가가 절대로 뒤바꿀 수 없는 과정이다.

3.7

그러므로 우수한 전략은 한 나라의 행동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를 증대시키는 기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아니라 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개선하는 기술, 행동이 더 훌륭하고 더 초월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인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국가의 최고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른다. 신현실주의와 지식 지정학

사이의 차이가 고전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잘 보여준다. 완벽하게 이성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존재하지 않듯이 그러한 호모 지오폴리티쿠스(Homo Geopoliticus)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다. 국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맹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자신의 지식권 탐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국가 자신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자아만이 인간과 지혜로의 길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다. 오직 국가의 자아만이 국가가 지혜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3.8

그러므로 자아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학이 경제학을 풍부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은 지정학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행동 경제학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 지정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동 지정학은 지식 지정학 안에 고이 간직되고 이것은 모든 국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인 자아, 예를 들어 오늘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현인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4. 국가의 자아와 자아의 교활함에 관하여

4.1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진정한 자아와 수피가 “명령하는 자아”라 일컬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 “명령하는 자아”는 외부의 모든 적들을 모아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운, 엄청난 국가 최대의 적이다. 국가의 자아는 국가로 하여금 자기 파괴의 길로 가도록 만들 뿐 아니라 그러한 자기 파괴의 길이 국가의 불건전한 양심에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삼손 옵션(Samson option)” 또는 “매드 독 독트린(mad dog doctrine)”⁴은 신경증적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천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예시이다.

4.2

수피는 “명령하는 자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외치는 자아로, 진정한 자아를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자아로 정의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정신의 질병은 모든 정치적, 지정학적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용이 모든 신경증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모든 국가의 신경증과 정신병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고통, 불안, 침략, 등을

⁴ 마틴 반 크레벨드(Martin van Creveld)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수 백 개의 원자 탄두와 로켓을 가지고 있고 목표물에, 심지어 로마에도 사방으로 발사할 수 있다. 대부분 유럽의 수도는 우리 공군의 목표물이다. 모셰 다얀(Moshe Dayan)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보자. ‘이스라엘은 미친 개와 같아서 건드리기에 너무 위험하다. [충격] 우리는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굴복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2003.9.21. Guardian 기사 “We have the capability to take the world down with us”, 2003.9.20. Observer “The war game”에서 발췌] 어느 국가 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회복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신경증에 책임이 없다. 모든 국가는, 특히 신생 국가들은 어느 단계에서 죽음과 고통의 공포의 노예가 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다. 국가가 전적으로 “다시는 없다(never again)”는 정신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필자보다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알리 엔다우가 더 좋은 답변을 내놓았다.

피하기 위해 원래 피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자신과 다른 나라에 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한다. 대의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종종 최악의 것을 피하기 위해 악행들이 행해진다.

4.3

국가는 그들의 최고의 이익을 알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국가는 거의 항상 자신의 엄청난 이익을 알지 못하며 대체로 국가가 재앙이라고 여기는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만 국가의 상태가 개선된다. 병든 국가는 자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며 독이 든 성배로부터 어떤 가장된 은총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4.4

아무런 이유 없이 여전히 프랑스 국가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조르주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신의 감정적 성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클레망소는 베르사유 조약을 시행하고 루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를 위한 최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굴욕들이 없었다면 독일은 기꺼이 제 2 차 세계 대전의 근간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클레망소는 자신이 프랑스 최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으며 결국 독일의 항복의 원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이고 심리학적인 힘이 대중적 정서의 반영으로서 이러한 결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었다. 베르사유의 강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프랑스의 이익이 아니었다. 유럽의 관대함을 널리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의 이익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고 자비로운 태도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프랑스 정부의 신경증과 정신병적 상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 모범과 자비는 여전히 너무 여성적인것으로 조롱받는 경향이 있는 가치들이다.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신경증적 국가와 정신병적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이러한 국가의 정신병 그리고 특히 가장 폭력적인 것, 즉 버려짐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4.5

국가는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 국가가 더 훌륭한 수단을 개발하면 곧바로 거만해진다. 국가는 군대와 정보부 그리고 첨단 기술과 예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는 장관들이 그들이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수십억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듣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주장은 기록되고 반복되어야 하며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그들의 최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4.6

어린 아이가 사랑을 열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열망하는 것은 종종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지정학자들이 국가가 무기를 든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엄청난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국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프랑스 제국의 모든 토착민들에게 “혈육상잔에 의한 프랑스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제 4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에서는 완전한 재앙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원칙들을 근거로 지역 통치를 함으로써 프랑스 제국의 정체성과 웅장함을

프랑스 인권 선언과 통합할 방법이 있었다. 해결책은 언제나 지식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과 집중(시간, 집중과 지식권과의 관계는 행동의 양과 행동권과의 관계와 같다)을 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생각이 결코 표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 비식민화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식민자나 피식민자들에게 똑같이 하찮았을 것이다.

4.7

국가의 자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모든 자아는 구조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신생 국가들은 주로 그들 자신에게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비열한 본능과 감정에 영합하는 방대하고 비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과시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외의 두려움을 국가적 신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스스로를 가르치는 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국가들이고, 결국 이들은 종종 다른 나라를 전멸시킨다.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Richard Francis Burton)은 “수백만 명이 끔찍한 삶을 사는 곳에서 수백만 명을 더 죽인다”고 노래했다.

4.8

우리가 전 역사에 걸쳐 국가의 존재를 살펴보면 보통 국가는 주로 다른 나라의 존재에 대항한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와 국가로 무장된 국가는 종종 순전히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미국 원주민들처럼 자기 국가조차 갖지 못한 채 다른 국가에 맞서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핵무기를 위한 경쟁 이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국가 없는 사람들을 절멸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실체, 즉 정부를 위한 경쟁이 있었다.

4.9

자아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자아는 민족주의이며, 반민족주의가 민족주의를 살피우기 때문에 반민족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결국 개인의 자아와 국가의 자아는 외부의 위협, 즉 생존 본능을 먹고 살을 찌우는 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주의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동 지역에 적용되는데, 그 곳에서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의 감정은 격해지지만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보낼 때에만 그들은 함께 할 수 있고 인류를 위한 보물로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처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갖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4.10

육체에서 나타나고, 두려움 속에서, 즉 정신적으로 더 나타나는, 죽음과 고통의 끊임없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 적대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자 운명의 한 부분이다. 자아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아의 죽음으로 정의되는 그런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 즉 불멸의 세상으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세상, 시간의 본질, 즉 플라톤이 정확하게 이해했듯 불변의 영원에 대한 유동적 이미지로 정의되는 불균형한 세상과는 정반대이다. 오직 자아없는 천국만이 “역사의 끝”으로 정의될 가치가 있다. 개인의 자아의 죽음과 집단적 자아의 죽음에 근거하지 않은 정의는 주제넘은 것이다.

4.11

아기는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는데, 나는 왜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운가? 나는 왜 정보, 자신감, 사회적 유대, 또는 감정적 애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는가? 예외 없이 그것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이 자아가 형성되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후 세계⁵의 경우에서처럼 인간 사회는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국가의 전당(Hall of Nations)⁶에 새겨진 사디 시라지(saadi Shirazi)의 유려한 시에 의해 강조되었듯이 무엇보다 인간 사회는 집단적인 거대 유기체로, 또 그것의 다양성으로 통합될 것이다. 자아는 생존 본능으로부터 부족을 형성하고 그런 다음 국가, 즉 현대의 하이퍼 집단(hyper-tribes)을 형성하지만 또한 이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진실의 변형이 계속되는 한 자아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부조화이다.

4.12

어떤 점에서 인터넷은 죽음의 위협이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웹 상에서 고통과 신경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터넷 상에도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는데 특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가장 지독한 것 중 하나가 사생활의 침해이다. 인터넷 상에서 공포와 불신을 촉발하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를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방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을 순환시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4.13

수 천 년 전 발생한 잔인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은 여전히 현재와 미래의 자아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동정의 행위들에 대한 기억 또한 자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과거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사이의 이러한 모든 상호작용(omnia ad omnia)은 인간의 자아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역할을 과학적 의미의 용어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든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이 시스템은 혼돈상태(chaotic)이다. 이것은 “나비 효과”의 한 예이다. 다시 말해 나비비파 깊은 사막에서 단 하나의 동정의 행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수피는 자비만이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러한 상호 관계를 나크슈(또는 위대한 그림/디자인)라 부른다.

4.14

자아의 병 중에는 완전한 통제를 향한 욕망이 있다. 국가의 자아는 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맹국들을 통제하고 정복하고 싶어 한다. 국가의 자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공격부 역할을 하는 국방부를 무장하고 싶어 한다. 셰이크 알리 엔다우는 지구상에서 전쟁의 성향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과 가장 큰 무기상들로 구성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국 불안 보장 이사회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 예방적 방어가 공격적이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제할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병든 자아는 예방적 전쟁과 경계를 훨씬 넘어서

⁵ 죽음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여기 지구에만 존재한다. 죽음은 규칙이 아니라 존재의 예외이다. “그리고 죽음이 일단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죽는 사람은 없다.”(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우리는 실제 삶에서 죽지 않는다.”(부아렘 에버케인(Boualem Aberkane)) 유태인, 기독교인,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무슬림들은 신자의 과업은 이 땅에서 사후세계의 상태를 얻기 위해 “죽기 이전에 죽는(die before dying)”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또한 그들의 실제 삶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단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아에 의해 매일 훼손된다.

⁶ “인간은 하나의 본질과 영혼으로 생성된, 전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한 명의 구성원이 고통으로 괴로워한다면 다른 구성원들도 불편할 것이다.”

개입을 정당화 할 것이다. 이러한 신경증은 때때로 대중 문화에 반영되는데 이것은 종종 그 시대 정신의 증거가 된다. 적들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로 방패를 출시한 수피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가 이 시대의 매우 적절한 예시이다. 그 방패의 상징적 본질, 즉 명백한 신경증과 정신적 미숙함의 표현이 저절로 드러난다. 방어가 공격으로 치명적으로 변한, 완전한 통제를 향한 욕망으로 인해, 한 국가의 완전성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모든 군대는 정복의 도구가 된다. 프랑스 혁명의 국민 공회에 의해 배치된 다음 나폴레옹의 손으로 넘어간 군대, 마케도니아 결사군의 손으로 넘어간 카르타고에 대항한 싸움에 배치된 군대, 군 산업 단지의 손으로 넘어간 워싱턴과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배치된 군대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긴 했지만 여러 차례 몽골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때까지 불간섭주의자로 남았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4.15

그러나 완전한 통제를 열망하는 자아는 자신을 파괴할 때, 특히 국가가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추구하는 대신 자신을 통제하려 애쓸 때에만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아는 외부의 지배가 아니라 내적 통제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금욕주의는 국가를 위한 영혼의 자유이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드리스 샤(Idries Shah)는 “어떤 것도 수피를 더럽힐 수 없으며 사실 수피는 모든 것을 정화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인데 국가는 세속적인 외부의 행동들보다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신성하게 적용함으로써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그러한 신성한 제국의 내부를 정복하는 길은 국가의 금욕주의를 통해서이다.

5. 국가 금욕주의: 국가를 위한 정신 자유에 관하여

5.1

금욕주의는 자기 통제의 방법이다.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제국들은 인류를 위한 보물이고 이들은 무한한 소프트 파워를 누린다. 즉 제국들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철학자의 돌을 가지고 있듯 모든 것으로부터 금을 만들고 따라서 원재료를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 신현실주의는 모든 국제 관계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명목 하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것은 단지 대부분의 국가가 불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 대한 신성하고 진정한 목적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5.2

국가의 자아는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가에 저항해 희생한 전체 국민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자아가 순화되거나 초월되면 국가는 너무나 많은 집단의 목숨을 희생시킨 이러한 아주 오래된 욕망들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베르링의 희생자들이 독일에 있는 프랑스인처럼 독일인이 현재 프랑스의 집에서 어떤지 보기 위해 그들의 무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인류의 가장 심각한 정신병은 국가의 정신병이다. 국가의 금욕주의가 정신병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한 정신적 치료이다.

5.3

그러나 국가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신도 결코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앞장 서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 치료는 쓰디쓴 약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신은 자신을 돌보기로 결정하기 위해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더욱이 정신을 돌보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의 모든 요구를 위해 정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명령을 수천 번 듣게 될 것이다.

5.4

그러므로 플라톤이 정확하게 이해했듯 민주주의의 거대한 위험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보다 수천 배나 더 많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가짜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간접적인 본성이 엄밀히 말해 민주제이기보다는 소수 독재이기 때문에 “가짜(pseudo)”다)는 과도하게 팽창되고 유지하기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파괴적인 가능성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국민들과 정확히 동일한 약점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이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때 비아프라에서의 드골이나 러시아에서의 나폴레옹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 국가의 자아의 불건전한 욕망은 수십 만 명이 죽는 결과를 초래한다.

5.5

지미 카터는 정신은 결코 자신의 치료를 구하지 않으며, 국가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정치인은 항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정치인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어렵게 알게 되었다.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고 카터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케네디와 오바마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재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 카터는 지혜와 국가 금욕주의의 완벽한 표현인 자기 절제를 추구함으로써 그의 통치기간을 시작했다. 값싼 원유의 시대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더라도 우리는 왜 우리 나라를 기술적으로 변화시킬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전쟁의 시기에 파괴하기 보다는 건설하려는 노력을 결속시키며 자기 희생 정신을 가졌듯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기술적 변화를 국가적 노력으로 바꾸지 않는가? “전쟁의 도덕적 등가물”이라는 훌륭한 담론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윤곽을 잡은 두려움을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즉 인간의 자아는 평화의 시기보다 임박한 죽음에 처했을 때 훨씬 더 한 종족으로서, 팀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카터주의”는 이후에 이러한 담론과는 정반대, 즉 걸프 원유지를 무력으로 지키는 것 등을 내포하는 의미의 용어가 되었으며 40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정치인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셰이크 알리 엔다우가 강조하듯 꿈꾸는 자는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꿈을 없애지는 못한다.

5.6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보다 다른 사람들에 저항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두려움, 자만, 허영, 보복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자아를 강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거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 인류에게 극도로 사악하고 위험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전쟁은 단지 자아의 끝없는 핑퐁 게임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A는 B의 경계를 넘고 B는 A의 경계를 넘고, 과거의 잘못이 미래의 적이 된다. 정치 사상가들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수백 개의 전쟁들을 명석하게 돌아볼 수 있고 전쟁의 명백한 무익함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은 슬프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5.7

우리가 기꺼이 추구해야 할 것은 계몽된 독재 정치도 자아의 민주주의도 아니다. (“단일 자아, 단일 투표”는 끔찍하다) 대신에 우리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었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성숙한 국민에 의해 추진된 자아 없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시행 착오들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이전에 계속되어 온 자아 전쟁이나 정치인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전 역사에 걸쳐 눈가림을 통해(브레진스키의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가 수 많은 예 중 하나) 인류를 통제하려는 무의미한 시도들과 동일한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8

정말로 성숙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단지 철학자나 현대 주술사, 교황이나 의사의 비축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가능한, 국가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신의 질병을 인식하고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늘날 누구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으며 모든 폭력의 근원에 있는 신경증과 정신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인정조차하려 들지 않는다.

6. 지식 지정학적 통치자 또는 “사려 깊은 생각이 의무인 곳”에 관하여

6.1

우수한 질이 아닌 양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지식의 양은 매 7 년에서 9 년 사이에 두 배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정보 또는 낮은 수준의 지식에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개념, 품격 있고 통합적인 패러다임, 양질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이다. 현대의 연구는 단지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연구자는 기사를 생각하고 시세와 자금에 매달려야 하는 알 낚는 닭, 즉 데이터 좀비일 뿐이다. 시스템은 모든 우수한 것을 버렸고 많은 우수한 간행물들이 과거에도 또한 현재에도 거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료 평가(peer review)는 논리적 결론에 제공된 편협한 사고인 동료 압력(peer pressure)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연구는 파격적이지도 열망에 의해 대단히 우수하지도 않으며 다만 강요되었을 경우나 심지어 우연히 그럴 뿐이다.

6.2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에 관해 말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과학과 인문 분야에서 정보기술은 철학자들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그것은 연구가 지식의 생성을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를 제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연구를 촉구하고 고무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들이 학계에 그들에게 넘겨준 별 볼일 없는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권장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는 근본적으로 비선형적이다. 그리고 연구를 선형화하려는 시도는 한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한계를 긋는 것이다.

6.3

중국에서 과학 관련 발행물의 수의 증가와 총 수출량의 성장 사이에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와 동일하지 않지만 이러한 성장은 평화를 위한 요소인 중국의 지식 지정학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중국은 그 나라의 연구자들이 가능한 많은 논문을 만들어 내도록 재촉하기로 결정했고 (말도 안되는 대학 순위가 이것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은 당연히 중국 대학이다) 이것이 수 많은 남용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분명 지식 경제에서의 중국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 연구는 지식의 생산을 위해 개발된 인프라이다. 과거에 원유가 그랬듯 오늘날에는 지식이 추출된다. 비록 이것이 지식을 뽑아내는 옳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지식이 새로운 원유라는 깨달음을 암시해 준다.

6.4

우리는 지식이 미래의 원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그리고 물질의 가치 개발은 모두 지식으로부터 나오며 지식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식 교환은 긍정의 합(수도플라토프(soudoplatoft))의 법칙: 지식을 나누는 것은 배가시키는 것이고 물질을 공유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이기 때문에 공유하기를 장려하는 자원이다. 국가가 향상된 수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분배하며 지식에 대한 의무가 아닌 애정으로 구현된 구조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교육 체계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정(욕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극제이기 때문이다.

6.5

그러나 원활한 지식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모든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생명을 구하고 문명에서 고통과 무지를 치유하기 때문에 매우 신성하다.

6.6

더욱이 지식의 순환이 하나의 인프라라면 국가는 지식을 인프라로 보고 이에 따라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브루스 칸의 법칙이다. 결국 초강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광활하게 연결된 영토와 그에 필적한 인구이다. 한 나라의 인구를 연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지식 지정학적이고, 문화적·사회적이며 기술적인(현재에는 태블릿과 인터넷, 미래에는 신경인체공학), 견고한 동시에 유연한 인프라 건설의 결과이다.

6.7

에드가 포(Edgar Poe)는 파라다이스를 “깊은 생각이 의무인 곳”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의 표현을 통한 통치가 진정한 지식 정치학이다. 지식 정치학은 엄밀히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집중된 내적 노력이다. 지식 정치학의 목적은 권력을 공경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초월적 지식을 공경하기 위해 권력을 갖는 것이다. 수피가 언급했듯이 최악의 학자는 군주를 찾아 가는 자이고 최고의 군주는 학자를 찾아 가는 자이다. 이 문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지식이 권력을 지배하는 지식 지정학적 군주를 완벽하게 묘사한다.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사실로 청중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찾아 간 적이 있었는가? 이러한 속담은 국가의 지식이 권력을 위한 자리에 놓여졌을 때 국가는 타락하게 되며 권력이 지혜에 도움이 될 때에만 국가는 건설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6.8

지식 정치학은 자신에게 변화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러나 지식 정치학의 응용은 반대하고 지식 정치학에 정통한 국가는 인류를 위한 보물이며, 인터넷과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던 시대에 이들 시스템과 기기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의 탄생지가 될 것이다. 인류를 위한 보물이 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을 위한 보물이 되는 것으로써 출발해야 한다. 또한 첨단 군사 기술이 민간인을 위한 역할을 할 때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관측은 군사 산업 단지의 중심에 있고, 이것은 대량 파괴의 무기를 대량 건설의 수단으로 바꾸는 의도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제국들은 눈 깜박할 사이에 팽창이 아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절망의 충격과 경외가 아닌 희망의 충격과 경외의 모범을 통해 그들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6.9

오늘날 국가가 신뢰, 지식, 그리고 지혜의 원활한 흐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달할 수 있는 통치자가 지식 지정학의 군주이다. 유네스코(UNESCO)는 서문에 그러한 기술이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은 여전히 분명한 위험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새롭고 더 강력한 첨단 기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부와 힘을 갖춘 자아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7. 지식 지정학적 실증주의에 관하여

7.1

어떤 전쟁이든 오로지 지식과 무지의 조합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지식은 해를 가하는 데 필요하고 무지는 갈등을 초월하는 데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식은 적에게 해를 끼치는 데 필요하고 무지는 유일한 영원한 적인 갈등에 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적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늘 누군가를 죽이는 장군이 미래의 동지의 자손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적군은 사실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전쟁의 기술은 확실히 통달하고 평화의 기술은 완전히 무시한다. 평화의 기술은 사실 자아에 대항한 전쟁, 다시 말해 이 주제에 관하여 여전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 “더 위대한 정신적 투쟁”이라 일컫는 내적 투쟁이다. 이러한 지식과 무지의 결합은 모든 전쟁의 화약이며 이것이 이러한 인류의 기생충적인 존재를 부추긴다.

7.2

클라우제비츠는 적의 행동에 대한 무지를 언급하는 데 “전쟁의 안개(fog of wa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 자체를 진정한 적으로 여긴다면 적을 파괴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는 “전쟁에 대한 전쟁의 안개(fog of the war on war)”이다. 지식 지정학과 관련되어 있는 한 전쟁의 안개는 평화를 만드는 데 가능한 수단에 대한 무지, 전쟁과 효과적으로 전쟁하는 법에 대한 무지이다. 마틴 루터 킹이 언급했듯이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이기 때문에 전쟁의 안개는 평화를 이루는 법에 대한 무지이다.

7.3

완전하고 절대적 지식의 맥락에서 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러한 생각은 지식 지정학적 실증주의를 위한 토대이다. 버튼은 사후세계와 자아의 소멸을 절대 지식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러한 “나”는 미래의 삶을, 나 자신의 더욱 고상한 복제물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모든 수수께끼가 갈대로 엮여 있는 곳, 모든 지식이 알려지는 곳,

인간이 지구에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의 전체를 보게 될 곳에서”

7.4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국가가 파멸을 위한 능력을 개발할수록 국가는 파멸을 문제에 대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동은 이러한 사실의 명백한 예가 된다. 따라서 화해, 동정, 인내, 겸손, 자기 희생, 조화를 업무의 일상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루스 다이안(Ruth Dayan)처럼 여성적 마음을 지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사회 진화는 종종 여성들에게 오직 그들만이 세상에 데려올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기고 남성들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여성과 평화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부장제의 가치들은 경쟁, 복수, 전쟁을 중심으로 세워진 반면 모계 중심의 가치들은 연민, 인내, 무조건적인 용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7.5

죄수의 딜레마는 지식 지정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 두 명의 죄수가 따로 조사를 받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선택권이 주어진다. 두 명 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둘 다 풀려난다. 한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한 명이 상대방을 배신하면 배신당한 자는 20 년 형을 선고받고 배신한 자는 풀려나게 된다. 두 명이 서로 배신하면 각자 5 년형을 선고받는다. 개인적 관점에서 가장 이치에 맞는 전략은 배신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집단을 위한 이상적인 전략은 아니더라도 총체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고 안정된 전략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과 일치하며 안정적이다. 두 명의 죄수가 서로를 신뢰하는 상황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며 불안정하다. 파레토 최적은 참가자의 수가 더해질수록 불안정해지는 반면 내쉬 균형은 훨씬 더 안정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7.6

단 하나의 권력이 자신의 무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때 나머지 권력들이 자신들을 무장 해제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무기 군비 축소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국가가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적어도 경제 부진을 유발하고 (비록 잘못될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교토 의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군터 파울리가 설명했듯이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노예제 폐지로 미국 북부 정부는 그들의 생산 패러다임을 바꾼 최초의 정부가 되어 남부보다 먼저 산업화가 되었듯 오염의 근절을 통해 우리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지닌 새로운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파울리가 “블루 이코노미”라 부른 것)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무장 해제에 경우 파레토 최적과 내쉬 균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안정적 (내쉬 균형)이고 동시에 집단적으로 최적인(파레토 최적) 세계 평화의 상태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직 갈등의 초월적 해결과 마찬가지로 지식권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적 생각은 지식 지정학적 실증주의의 한 예시이다.

7.7

근본적으로 지정학은 영토보다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영토를 통치한다는 것은 이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유일한 관심사이다. 지정학이 절대 지식으로 들어가면 지정학이 전혀 쓸모가 없음은 명백하다.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며 우리의 은하수에는 인류의 전 역사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은하수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주에는 그만큼의 은하수가 있다. 별이나 은하수 전체의 소멸은 지금까지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 개개인의 소멸보다 더 빈번했을 것이다. 이것은 광활한 우주와 지식의 문맥에 놓였을 때 자원을 놓고 별이는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 그리고 자본에 앞서서 모든 전쟁의 원천인, 고작 배급량 쿠폰에 지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주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식 지정학은 지정학이 절대 지식에 잠식하도록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월이 지식 지정학의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7.8

간디가 말했듯이, 특히 지식이 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파격적인 도움의 손길을 건넬 때 지구에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러나 간디는 또한 모든 사람의 자아, 분명 모든 나라의 자아를 만족시킬만큼 충분한 자원은 전혀 없다고 말하곤 했다. 지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다면 지식은 무한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7.9

그러므로 지정학은 인류를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 과학이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전체 별보다 수 천억 배나 희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정학도 자신의 중요성을 가진다. 지정학은 전체 별들보다 더 희소한 실수와 죽음을 다루기 때문이다.

7.10

결론적으로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갈등의 모든 원인을 장악하고 있는 지 이해하기 위해 역사상 거의 모든 엄청난 갈등의 중심축인 실크로드를 분석해 보자. 실크로드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웅담, 그런 다음 십자군,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진 모든 전쟁을 위한 무대였고 오늘날에도 실크로드는 예전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경쟁적인 원유 경로가 되었다. 십자군 전쟁 당시 문맹의 국민들이 성스러운 도시로부터 불신자들을 몰아내자는 말에 동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원유 경로를 통제하거나 동요시키는 데 종교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 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지식이다.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토지를 재생시키기 위해 뽕나무를 심었고 어느 날 그들이 쓰레기라고 여겼던 것, 즉 뽕나무 누에의 단백질 섬유소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백년 전쟁의 배후에는 작은 나방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20세기 모든 전쟁은 원유와 연결되어 있고 1914년 연합군이 독일에 했던 것과 똑같이 OECD가 중국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힘을 다하고 있는 21세기의 시작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유와의 연관성이 크다. 그러나 파올로 루가리(Paolo Lugari)는 실크로드와는 먼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탄화수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에 있는 라 가비오타스의 사막화된 땅에 카리브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이탈리아 선지자는 특히 훌륭한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발견된 소나무로진을 이용함으로써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큰 번영을 이루어냈다. 이것은 단지 무한한 지식의 파격적인 힘과 무한한 지혜의 평화적인 힘의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실제로 인간과 국가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실크, 원유, 금을 위한 그 자신들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행복한 이야기에서, 인류가 이 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인류를 만든다고 우리가 믿어 왔던 지난 5000 년은 단지 짧은 우회로였음이 입증될 것이다.

7.11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지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인류에게 달려 있다. 언제 우리는 영토를 위해 죽는 것을 멈출 것인가? 언제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의 피가 아닌 우리의 지혜로 채우기 시작할 것인가?

7.12

실크나 원유를 위한 길을 넘어서 나아가자. 어느 지역에서든 그리고 언제든 지혜를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아테나의 캠프에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7.13

권력에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진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권력에 달려 있다. 진실은 최고의 권력이다.

May 2015

ECONOMY OF KNOWLEDGE

知识经济

ÉCONOMIE DE
LA CONNAISSANCE

지식 경제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org

Idriss J. ABERKANE

Economy of Knowledge

Idriss J. Aberkane, may 2015, 48 pages

OUR PUBLICATIONS

The radical Left: links, places and struggles (2012-2017)

Sylvain Boulouque, May 2016, 56 pages

Governing to reform: elements of methodology

Erwan Le Noan and Matthieu Montjotin, May 2016, 64 pages

Occupiers of Zones-to-defend (2): the temptation of violence

Eddy Fougier, April 2016, 44 pages

Occupiers of Zones-to-defend (1): a new anticapitalist phenomemon

Eddy Fougier, April 2016, 44 pages

Regional elections (2): political parties are questioned but not challenged

Jérôme Fourquet and Sylvain Manternach, March 2016, 52 pages

Regional elections (1): far-right vote and terrorist attacks

Jérôme Fourquet and Sylvain Manternach, March 2016, 60 pages

Law serving innovation and growth

By Sophie Vermeille, Mathieu Kohmann and Mathieu Luinaud, February 2016

Lobbying: a democratic tool

Anthony Escurat, February 2016

Values of Islam

Dominique Reynié, January 2016

Shiites and Sunnis – is peace impossible?

Mathieu Terrier, January 2016

Companies governance and society needs*

Daniel Hurstel, December 2015

Mutuality: meeting insurance-sector challenges

Arnaud Chneiweiss and Stéphane Tisserand, November 2015

Noopolitics: the power of knowledge*

Idriss J. Aberkane, November 2015

European public opinion in 2015

Dominique Reynié, November 2015

Political Innovation 2015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October 2015

Good COP21, Bad COP21 (2): beyond political correctness

Albert Bressand, October 2015

Good COP21, Bad COP21 (1): Europe's Kant meet China's Machiavel

Albert Bressand, October 2015

SMEs: new financing methods

Mohamed Abdesslam and Benjamin Le Pendeven, October 2015

Long live motoring (2): the case for road use

Mathieu Flonneau and Jean-Pierre Orfeuill, October 2015

Long live motoring (1): conditions for user-friendly mobility

Mathieu Flonneau and Jean-Pierre Orfeuill, October 2015

Crisis of the Arab/Muslim conscience

Malik Bezouh, September 2015

Département elections of March 2015 (3): second round

Jérôme Fourquet and Sylvain Manternach, August 2015

Département elections of March 2015 (2): first round

Jérôme Fourquet and Sylvain Manternach, August 2015

Département elections of March 2015 (1): background

Jérôme Fourquet and Sylvain Manternach, August 2015

Higher education: the limits of a Master qualification for all

Julien Gonzalez, July 2015

Economic policy: the Franco-German issue

Wolfgang Glomb and Henry d'Arcole, June 2015

Laws of primaries, past and future.

François Bazin, June 2015

Economy of Knowledge*

Idriss J. Aberkane, May 2015

Fighting theft and burglary: an economic approach

Emmanuel Combe and Sébastien Daziano, May 2015

Uniting for action: a programme for growth

Alain Madelin, May 2015

A new vision of enterprise and human value

Francis Mer, April 2015

Transport and funding mobility

Yves Crozet, April 2015

Digital technology and mobility: impact and synergies

Jean Coldefy, April 2015

Islam and democracy: facing modernity

Mohamed Beddy Ebnou, March 2015

Islam and democracy: the foundations

Ahmad Al-Raysuni, March 2015

Women and Islam: a reformist vision

Asma Lamrabet, March 2015

Education and Islam

Mustapha Cherif, March 2015

What have parliamentary by-elections since 2012 told us?

Dominique Reynié, February 2015

Islam and the values of the Republic

Saad Khiari, February 2015

Islam and the social contract

Philippe Moulinet, February 2015

Sufism: spirituality and citizenship

Bariza Khiari – February 2015

Humanism and humanity in Islam

Ahmed Bouyerdene, February 2015

Eradicating hepatitis C in France: what public strategies should be adopted?

Nicolas Bouzou and Christophe Marques, January 2015

Keys to understanding the Koran, Tareq Oubrou, January 2015

Religious pluralism in Islam or the awareness of otherness, Éric Geoffroy, January 2015

Future memories*, a survey conducted in partnership with the Fondation pour la Mémoire de la Shoah

Dominique Reynié, January 2015

A disintegrating American middle class

Julien Damon, December 2014

The case for supplemental education insurance: middle class schooling

Erwan Le Noan and Dominique Reynié – November 2014

Anti-Semitism in French public opinion. New perspectives*

Dominique Reynié, November 2014

The competition policy: a plus for industry

Emmanuel Combe, November 2014

2014 European Elections (2): rise of the FN, decline of the UMP and the Breton vote

Jérôme Fourquet, October 2014

2014 European Elections (1): the left in pieces

Jérôme Fourquet, October 2014

Political Innovation 2014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October 2014

Energy/climate: the case for an effective policy

Albert Bressand, September 2014

Global urbanisation. An opportunity for France

Laurence Daziano, July 2014

What can we expect from monetary policy?

Pascal Salin, May 2014

Change is constant

Suzanne Baverez and Jean Sérié, May 2014

Too many emigrants? Perspectives on those who leave France

Julien Gonzalez, May 2014

European public opinion in 2014

Dominique Reynié, April 2014

Tax better to earn more

Robin Rivaton, April 2014

The innovative State (2): Diversifying the senior civil service

Kevin Brookes and Benjamin Le Pendeven, March 2014

The innovative State (1): Strengthening the role of think tanks

Kevin Brookes and Benjamin Le Pendeven, March 2014

The case for a new tax deal

Gianmarco Monsellato, March 2014

An end to begging with children

Julien Damon, March 2014

Low cost: an economic and democratic revolution

Emmanuel Combe, February 2014

Fair access to cancer therapies

Nicolas Bouzou, February 2014

Reforming teachers' status

Luc Chatel, January 2014

Social impact bonds: a social finance tool

Yan de Kerorguen, December 2013

Debureaucratisation through trust to promote growth

Pierre Pezziardi, Serge Soudoplatoff and Xavier Quérat-Hément - November 2013

Les valeurs des Franciliens

Guénaëlle Gault, October 2013

Settling a student strike: case study in Quebec

Jean-Patrick Brady and Stéphane Paquin, October 2013

A single employment contract incorporating severance pay

Charles Beigbeder, September 2013

European Opinion in 2013

Dominique Reynié, September 2014

The new emerging countries: the 'BENIVM countries'

Laurence Daziano, July 2013

Energy transition in Europe: good intentions and poor calculations

Albert Bressand, July 2013

Minimising travel: a different way of working and living

Julien Damon, June 2013

KAPITAL. Rebuilding Industry

Christian Saint-Étienne and Robin Rivaton, April 2013

A code of ethics for politics and public officials in France

Les Arvernes and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April 2013

The middle classes in emerging countries

Julien Damon, April 2013

Political Innovation 2013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March 2013

Reviving our industry through automation (2): issues

Robin Rivaton, December 2012

Reviving our industry through automation (1): strategies

Robin Rivaton, December 2012

Taxation a key issue for competitiveness

Aldo Cardoso, Michel Didier, Bertrand Jacquillat, Dominique Reynié and Grégoire Sentilhes, December 2012

An alternative monetary policy to resolve the crisis

Nicolas Goetzmann, December 2012

Has the new tax policy made the solidarity tax on wealth unconstitutional?

Aldo Cardoso, November 2012

Taxation: why and how a rich country is a poor country ...

Bertrand Jacquillat, October 2012

You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ndapol, Nomadéis, United Nations, June 2012

Philanthropy. Entrepreneurs in solidarity

Francis Charhon, May/June 2012

Poverty statistics: a sense of proportion

Julien Damon, May 2012

Freeing up funding of the economy

Robin Rivaton, April 2012

Savings for social housing

Julie Merle, April 2012

European opinion in 2012

Dominique Reynié, March 2012

Shared values

Dominique Reynié, March 2012

The right in Europe

Dominique Reynié, February 2012

Political Innovation 2012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January 2012

Free schools: initiativ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Charles Feuillerade, January 2012

French energy policy (2): strategies

Rémy Prud'homme, January 2012

French energy policy: issues (1)

Rémy Prud'homme, January 2012

Revolution of values and globalization

Luc Ferry, January 2012

The End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Sir Stuart Bell, December 2011

Industry regulation: accountability through non-governmental rules

Jean-Pierre Teyssier, December 2011

Hospitality

Emmanuel Hirsch, December 2011

12 ideas for 2012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December 2011

The middle class and housing

Julien Damon, December 2011

Three proposals to reform the healthcare system

Nicolas Bouzou, November 2011

The new parliament: the French law of 23 July 2008 revising the Constitution

Jean-Félix de Bujadoux, November 2011

Responsibility

Alain-Gérard Slama, November 2011

The middle class vote

Élisabeth Dupoirier, November 2011

From annuity to competition

Emmanuel Combe et Jean-Louis Mucchielli, October 2011

The middle class and savings

Nicolas Pécourt, October 2011

A profile of the middle class

Laure Bonneval, Jérôme Fourquet and Fabienne Gomant, October 2011

Morals, ethics and ethical conduct

Michel Maffesoli, October 2011

Forgetting Communism, changing era

Stéphane Courtois, October 2011

Nuclear power after Fukushima: minor incident or new era?

Malcolm Grimston, September 2011, 16 pages

World youths

Dominique Reynié, September 2011

Increasing the purchasing power through competition

Emmanuel Combe, September 2011

Religious freedom

Henri Madelin, September 2011

The ways to a balanced budget

Jean-Marc Daniel, September 2011

Ecology, values and democracy

Corine Pelluchon, August 2011

Valoriser les monuments historiques : de nouvelles stratégies

Wladimir Mitrofanoff and Christiane Schmuckle-Mollard, July 2011

Opposing technosciences: their networks

Eddy Fougier, July 2011

Opposing technosciences: their reasons

Sylvain Boulouque, July 2011

Fraternity

Paul Thibaud, June 2011

Digital transformation

Jean-Pierre Corniou, June 2011

Commitment

Dominique Schnapper, May 2011

Liberty, Equality, Fraternity

André Glucksmann - May 2011

What future for our defense industry

Guillaume Lagane, May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urélien Acquier, Jean-Pascal Gond et Jacques Igalens, May 2011

Islamic finance

Lila Guermas-Sayegh, May 2011

The state of the right Deutshcland

Patrick Moreau, April 2011

The state of the right Slovaquia

Étienne Boisserie, April 2011

Who owns the French public debt ?

Guillaume Leroy, April 2011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word

Nicolas de Sadeleer, March 2011

Understanding the Tea Party

Henri Hude, March 2011

The state of the right Netherlands

Niek Pas, March 2011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water quality

Gérard Morice, March 2011

Water: from volume to value

Jean-Louis Chaussade, March 2011

Water: how to treat micro-pollutants?

Philippe Hartemann, March 2011

Water: global challenges

French perspectives, Gérard Payen, March 2011

Irrig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Jean-Paul Renoux, March 2011

Water management: towards new models

Antoine Frérot, March 2011

The state of the right Austria

Patrick Moreau, February 2011

Employees' Interest sustaining purchasing power and employment

Jacques Perche and Antoine Pertinax, February 2011

The Franco-German tandem and the euro crisis

Wolfgang Glomb, February 2011

2011, World Youths*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January 2011

The European opinion in 2011

Dominique Reynié, January 2011

Public service 2.0

Thierry Weibel, January 2011

The state of the right: Bulgaria*

Antony Todorov, December 2010

The return of sortition in politics

Gil Delannoi, December 2010

The People's moral ability

Raymond Boudon, November 2010

Academia in the land of capital

Bernard Belloc and Pierre-François Mourier, November 2010

Achieving a new Common Agricultural Policy*

Bernard Bachelier, November 2010

Food Security: a global challenge*

Bernard Bachelier, November 2010

The unknown virtues of low cost carriers

Emmanuel Combe, November 2010

Political Innovation 2011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November 2010

Overcoming the Defense budget issue

Guillaume Lagane, October 2010

The state of the right: Spain*

Joan Marcet, October 2010

The virtues of competition

David Sraer, September 2010

Internet, politics and citizen coproduction

Robin Berjon, September 2010

The state of the right: Poland*

Dominika Tomaszewska-Mortimer, August 2010

The state of the right: Sweden and Denmark*

Jacob Christensen, July 2010

What is the police up to?

Mathieu Zagrodzki, July 2010

The state of the right: Italy*

Sofia Ventura, July 2010

Banking crisis, public debt: a German perspective

Wolfgang Glomb, July 2010

Public debt, public concerns

Jérôme Fourquet, June 2010

Banking regul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Nathalie Janson, June 2010

Four proposals to renew our agricultural model

Pascal Perri, May 2010

2010 regional elections: where have all the voters gone?

Pascal Perrineau, May 2010

The European opinion in 2010

Dominique Reynié, May 2010

The Netherlands: the populist temptation*

Christophe de Voogd, May 2010

Four ideas to boost spending power

Pascal Perri, April 2010

The state of the right: Great Britain*

David Hanley, April 2010

Reinforce the regions' economic role

Nicolas Bouzou, March 2010

Reforming the Constitution to rein in government debt

Jacques Delpla, February 2010

A strategy to reduce France's public debt

Nicolas Bouzou, February 2010

Catholic Church policy: liberty vs liberalism

Émile Perreau-Saussine, October 2009

2009 European elections*

Corinne Deloy, Dominique Reynié and Pascal Perrineau, September 2009

The Nazi-Soviet alliance, 70 years on

Stéphane Courtois, July 2009

The administrative state and liberalism: a French story

Lucien Jaume, June 2009

*European development policy**

Jean-Michel Debrat, June 2009

Academics: defending their status, illustrating a status quo

David Bonneau and Bruno Bensasson, May 2009

Fighting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Elise Muir, June 2009

*Stemming the protectionist tide in Europe**

Nicolas Bouzou, March 2009

Civil service vs civil society

Dominique Reynié, March 2009

The European opinion in 2009

Dominique Reynié, March 2009

Working on Sundays: Sunday workers' perspectives

Dominique Reynié, January 2009

**The titles marked with an asterisk are available in English.*

NEEDS YOUR SUPPORT

To reinforce its independence and carry out its mission,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needs the support of private companies and individuals. Donors are invited to attend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at defines the Fondation orientations. The Fondation also invites them regularly to meet its staff and advisors, to talk about its publication before they are released, and to attend events it organizes.

As a government-approved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published on 14h April 2004, the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can accept donations and legacies from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Thank you for fostering critical analysis on the direction taken by France and helping us defend European integration and free economy.

지식 지정학: 지식의 힘

이드리스 애버케인 박사 (Idriss J. Aberkane)

지정학은 영토와 권력 간의 상호작용이다. 지식 지정학은 권력과 지식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반사적이면서도 파괴적이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이 권력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과 통치 방법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식 지정학의 목적은 권력이 지식을 지배하는 상황, 이를테면 과학은 인류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 결국 과학을 국가에 넘겨 주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식 지정학은 지식권(智識圈)의 존재를 인정한다. 여기서 지식권이란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안선을 공유하는 지식의 바다이고, 국가들은 국가의 자유로운 행동의 영역인 행동권 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의 바다를 이용한다.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도 혁신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인지능력이 있지만 오늘날 중국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지의 미숙함은 국가가 혁신하기 이전에 제한되기를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극히 한정된 이유에 따라 행동하며 무엇이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지 알지 못한다. 전통적 지정학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식 지정학은 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자신에 대한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국가 금융주의의 근본이다. 결국 전쟁은 오직 지식과 무지의 공존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적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고 무지는 갈등 그 자체에 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절대 지식과 마주하면 전쟁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

La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Les données en open data



Le site internet



Les médias



11, rue de Grenelle
75007 Paris – France
Tél. : 33 (0)1 47 53 67 00
contact@fondapol.org